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3 허쉬혼 미술관 & 조각공원

큐레이터들 1일 교사로 '학교 투어'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National Mall)' 중심부에 위치한 '허쉬혼 미술관 & 조각공원(Hirshhorn Museum & Sculpture)'은 일명 '도너츠 미술관'으로 불린다.

원형 건물의 중심부가 텅비어 도너츠 모양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외양 때문이다. 지난 1966년 미국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인 고든 번사프트(Gordon Bunshaft: 1909-1989)는 이 미술관을 조각작품의 개념으로 설계해 워싱턴 D.C에 들어서 있는 수많은 미술관들과 차별화를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7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974년 10월 5천여평의 대지에 설립된 이 곳은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 산하 16개의 뮤지엄 가운데 유일하게 현대미술작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한다.

이 미술관의 설립자는 라트비아 이민자 출신의 재력가인 조셉 허쉬혼(Joseph H. Hirshhorn: 1899~1981). 지난 1950년대 우라늄에 투자해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그는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작가들의 미술품 수집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6천여점(그림 4천여점과 조각 2천여점)을 수집한 그는 자신의 컬렉션을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에 기증했으며 스미소니언 측은 그의 이름을 따 '허쉬혼 미술관'을 설립했다.

개관 당시 6천여점이었던 소장품은 매년 작품구입과 기증을 통해 현재 1만2천여점으로 늘었다. 소장품 가운데에는 1995년 제1회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회에 출품돼 친숙한 미국 작가 척 클로즈(Chuck Close)의 '로이 II'를 비롯, 앤디 워홀의 '자화상', 에드워드 호퍼의 'Elevan A.M.', 윌리엄 디 쿠닝의 '분홍빛 속녀', 지난해 작고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의 '비디오 성조기' 등이 들어있다.

70개의 비디오 모니터를 소재로 한 '비디오 성조기'는 자유의 여신상에서 빌린

탄, 조지 부시까지 미국의 정치인들과 상징들이 빠른 속도로 투영되는 작품으로, 현재 미술관 3층에서 전시 중이다.

이같은 방대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연중 열리는 현대미술 상설전에는 전 세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은 75만7천명으로 하루 평균 2천79명이 다녀갔다.

이 미술관의 특징은 건물 주변의 화려한 야외조각공원이다. 19세기 로댕의 '칼레의 시민'을 비롯해 브루델, 브람쿠스, 마티스, 피카소, 헨리머어, 알베르토 자코메티, 토니

'갤러리 토크(Gallery Talk)', '예술가를 만나다(Meet The Artist)', '하이트 워크숍', '패밀리 이벤트', '교사 워크숍', '학교 투어', 다큐멘터리 상영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이 가운데 6~12세 아동을 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 아트'는 미술감상에 대한 강의에서부터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 직접 작품을 만드는 수업으로 꾸며진다.

'예술가를 만나다'는 매월 정기적으로 작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들어보

백남준 '비디오 성조기' 등 소장품 1만2천점 매월 유명 작가 초청 '대중과 가까워지기' 6~12세 아동 대상 '영 아트' 체험교실 운영

크레, 로이 리히텐슈타인, 알렉산더 칼더 등 내로라 하는 세계적 조각가들의 작품이 미술관 주변에 늘어서 있다.

조각작품들이 선택로를 따라 전시돼 관람객들은 산책을 하며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이색체험을 하게 된다. 실내원형 전시장과 야외 조각공원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은 허쉬혼 미술관의 자랑이다.

허쉬혼 미술관에서 배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자산은 풍부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소장품 상설전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미술품 감상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 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 소속된 미술관 교육가와 큐레이터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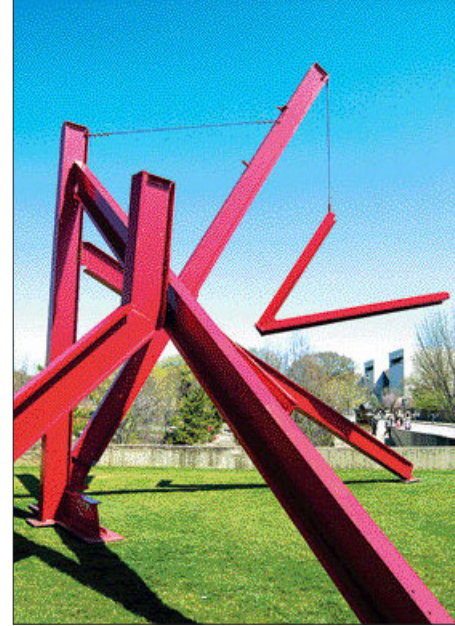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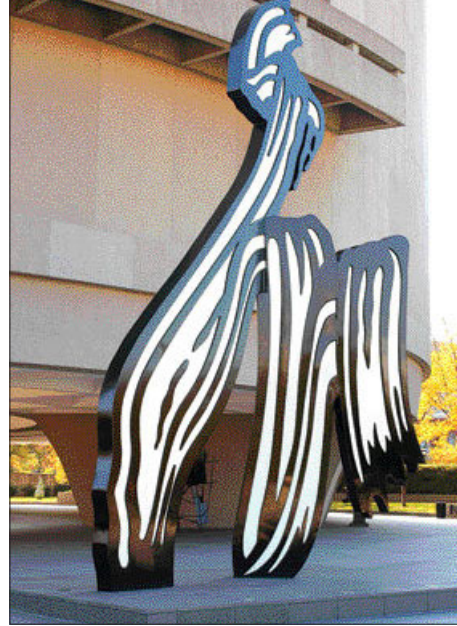
'아트 인터랙티브' '영 아트'(Young Art)

는 시간으로, 예술과 대중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화교와 연계한 '학교투어'는 도슨트와 큐레이터들이 1일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슬라이드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과 교실수업을 결집한 '학교 투어'는 몇개월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허쉬혼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책임자인 케리 브라우어(2004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씨는 "예술에 대한 마인드는 어릴때부터 심어줘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미술관은 매우 유용한 교육기관이다"면서 "가정과 학교, 미술관이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D.C=박진현기자 jhpark@kwangju.co.kr



허쉬혼 미술관의 소장품들. ▲ 백남준의 '비디오 성조기', ▲ 로이 리히텐 슈타인의 '분홍빛' (왼쪽), 그리고 마크 디 수베로의 '세월이란'

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허쉬혼 미술관 & 조각공원'. 원형 구조물의 미술관은 주변 녹지공간과 어우러져 전세계 관람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Advertisement for Caleo (칼레오)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fireplace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including energy efficiency and safety. Contact: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

Advertisement for air guns (공기총) featuring images of various air gun models and text describing their features and availability. Contact: (062)522-0077, 529-7988.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대인동삼일부동산)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Contact: (02)223-1140, 5210 현01-802-2332.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E Tower (LC타워)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Contact: (02)872-8004, 현010-7154-6986.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lga Gongin Real Estate (일가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Contact: (02)234-8216, 현011-698-0896.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Mimm Gongin Real Estate (믿음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Contact: (02)971-4811, 현011-827-0876.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eumgang Gongin Real Estate (금강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Contact: (02)858-7737, 8667, 현011-605-7957.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Toowoong Gongin Real Estate (토우드공인중개사)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Contact: (02)621384-1995, 현011-622-1995.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gwoo Real Estate (정우부동산)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Contact: (02)675-4788-7, 현011-603-4788.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omecon Real Estate (주)홈컨부동산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Contact: 062)233-2222, www.homecon.co.kr.